

# 하빈 신후담의 경학사상 서설적 연구

강병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선 후기 사상사 전공

bskand@aks.ac.kr

I. 머리말

II. 경학사상의 형성 배경

III. 현전하는 경학사상 관련 자료

IV. 생애 시기별 경학사상의 특징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후기 성호학과 하빈 신후담(愼後聃, 1702-1761)의 학문과 사상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그의 서학관(西學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왔다.<sup>1)</sup> 그러므로 그의 경학사상을 주제로 하여 접근한 연구 성과는 극히 미흡하다.<sup>2)</sup> 그의 경학사상 일부를 다룬 연구는 최봉영이 처음이다. 그는 성호학과 『대학』 격물치지장(格物致知章)을 각각 이해한 내용을 규명하는 가운데, 신후담의 격물치지장에 대한 이해도 함께 고찰한 바 있다.<sup>3)</sup> 성호학과의 학설로 이해되는 『고문대학(古文大學)』에 대한 문헌적 신뢰를 신후담도 긍정함으로써 주자의 격물치지장의 보망장(補亡章) 재편(再編)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sup>4)</sup>

그리고 신후담의 유고(遺稿)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저술은 『주역』을 주해한 것인데, 필자는 신후담의 주역사상을 고찰한 바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자 『역경(易經)』의 본원적 의미 추구와 성호이익의 영향을 받아 '역(易)'이 주점(主占)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전제하면

- 
- 1) 신후담에 관한 그동안의 논문은 20여 편을 상회하며, 서학에 대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저들이 참조가 된다.

이만재, 『벽위편 - 신후담의 서학변-』(열화당, 1971); 금장태, 『조선 후기 유교와 서학』(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홍이섭, 「실학의 이념적 일모 - 하빈 신후담의 서학변 소개-」, 『인문과학』 1(1957); 박종홍, 「서구사상 도입 비판과 섭취」, 『아세아연구』 12-3(1969); 이원순, 「직방외기와 신후담의 서학교육론」, 『역사교육』 11 · 12합집(1969); 최동희, 「신후담의 서학변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15-2(1972); 최동희, 『실학사상 탐구』(고려대학교 아세아민족문화연구소, 1974); 최동희, 『신후담 · 안정복의 서학비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76); 금장태, 「遯窩 愼後聃의 서학비판이론과 쟁점」, 『종교학연구』 20(2001); 서종태, 「이익과 신후담의 서학담론」 I · II · III, 『부산교회사보』 27 · 29 · 31(2000. 7, 2001b. 1, 2001c. 7); 서종태, 「이익과 신후담의 서학논쟁 - 『둔와서학변』의 「기문편」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16(2001a); 정혜정, 「서구 근대교육의 수용과 '교육론'의 동서융합(18-19C) -해강 최한기를 중심으로-」, 『韓國教育史學』 제30권 제1호(2008. 4); 川原秀城 · 김현영, 「李瀼의 科學思想」, 『星湖學報』 8(2010. 12).

- 2) 신후담의 경학사상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강병수의 「河濱 愼後聃의 四七論 전개 -公喜怒理發說의 형성 배경과 그 영향-」(『韓國實學研究』第22號, 2011b 후반기)이 있고, 신후담의 경학사상을 다루었지만 중심으로 다루지는 않은 논문으로는 강세구의 「星湖學派의 理氣論爭과 그 영향 -公喜怒論爭을 중심으로-」(『龜泉元裕漢教授停年紀念論叢』(下), 해안, 2000)가 참조된다.

- 3) 崔鳳永, 「星湖學派의 朱子大學章句 批判論 -格物致知說을 中心으로-」, 『東洋學』第17輯(1987), 47-49쪽 참조.

- 4) 최봉영도 밝혔듯이 그는 『대학』의 격물치지장을 정주가 보망한 것이 불필요하다는 견해까지 과감하게 제시한 측면이 그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서도, 정주 역학의 긍정적 부분을 수용한 ‘동점동리(同占同理)’ 사상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견해로 이해하고자 하였다.<sup>5)</sup>

그러므로 신후담의 경학사상 전반을 다룬 연구 성과는 없었다는 이해에서 출발한 필자는 그의 경학사상 전반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서설적인 수준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입장에서 성호학과 내에서 신후담이 추구하던 경학사상을 그의 유고 전반을 고구해보는 개관적 유추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그의 경학사상을 종합 분석하여 시기별·분야별 등의 세부적인 천착을 통한 체계적 의미부여라는 논지로까지 전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런데도 필자가 이렇게나마 고찰하려는 이유는 그의 서학관에만 집중적으로 주목해왔던 기왕의 연구방향을 지양하고, 그의 서학관이 나온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경학사상의 전반을 거칠게라도 다룸으로써 연구지향의 지평선을 넓히고 바꾸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학들이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다루지 않은 『하빈전집』(혹은 『둔와전서』, 『하빈잡저』 등), 즉 그의 유고에 실려 있는 경학관 내지 경학사상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제II장에서는 신후담의 경학사상의 형성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의 학문과 사상 전개에서 학문과정인 교육환경·가학(家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현전하는 신후담의 유고 가운데 그의 경학관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 제IV장에서는 신후담이 송학 이해를 통해, 특히 송대부터 청대까지 전개된 정주의 경학사상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그리고 그가 정주적 경학을 이해하는 연장선에서 그의 저술인 『중용후설』, 『대학후설』 등의 일부 내용도 피력하게 될 것이다.

한편, 신후담이 한대 이전으로 올라가는 선진시대의 경학사상을 추구

5) 姜秉樹, 「河濱 愼後聃의 易學 研究와 理解」, 『韓國思想史學』 第16輯(2001), 79-87쪽 참조.

6) 여기서 ‘정주 경학’이라 하지 않고 ‘정주적 경학’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두 용어의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뒤에 전개되는 ‘선진 경학’ 또는 ‘선진시대 경학’이란 용어와 대비시켜 이해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주 경학과 선진 경학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여기서 정주 경학과 선진 경학을 구별 짓고자 했는데, 전자는 춘추시대부터 송대 정주 이전까지의 경학을 정주가 주조하여 해석한 관점으로 이해한 것이고, 선진 경학은 공자를 중심으로 한 춘추시대 유가가 편집했다고 전하는 육경체계의 학문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자 한 일부 사실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선진시대의 경학 추구, 즉 수사학(洙泗學) 지향의 종지(宗旨)의 목적을 고찰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가 생애 전반기부터 제자백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제자백가사상을 평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필자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곧, 제자백가사상의 이해와 비판은 수사학 지향의 연장선에서 있는 것으로 읽혀지며, 이 또한 한대의 경학사상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 경학사상의 형성 배경

신후담의 경학사상 형성 배경에는 교육환경·가학·성호학과 등 세 가지 면이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교육환경은 가학과 성호학과 와도 연결되면서 당연히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구태여 교육환경을 별도로 분리하려는 것은 그의 청소년기 교육환경이 당대 유학자로서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 그 차이점을 분석해보기 위한 것이다.

사실 그의 청소년기는 자방적(自放的) 교육환경을 누리면서(가) 유술(儒術)이 지배하던 정치사회에서(8) 이단으로 비판되던 노장학을 다룬 저술을 다소 남기고 있다. 그가 1714년에 저술한 『금화외편(金華外篇)』·『속열선전(續列仙傳)』·『계수신기(繼搜神記)』·『태평유기(太平遺記)』·『용왕기(龍王記)』·『해신기(海蜃記)』·『요동우신여기(遼東遇神女記)』·『홍장전(紅粧傳)』·『기문도설(奇聞圖說)』 등에는 선사상(仙思想)을(9), 그 이듬해 저술한 『속도가(續道家)』·『옥화경(玉華經)』 등에는 노장사상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10)

7) 自放이란 단어는 신후담 자신이 사용한 용어로, 당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누릴 수 있었던 자신의 입지를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8) ‘儒術’이란 용어는 신후담이 그의 저술 『쌍계야화』 등에서 직접 쓰던 개념이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9) 『河濱先生全集』卷九「河濱年譜」甲午(亞細亞文化社刊, 2006). “四十年甲午 先生十三歲 公自號曰 金華子 以所居村名金城故也 著金華外篇 又著續列仙傳 公方幼少時 嘗留意於 黃白之術也 又著續搜神記 太平遺記 龍王記 海蜃記 遼東遇神記 紅粧傳 奇聞圖說 文字抄 雜書抄 隨筆錄 經說雜錄 等書 此雖公幼少時 泛濫乎方外文字 而其早年博通有如此也.”

\* 이하 하빈 저술은 2006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河濱先生全集』을 기본 사료로 인용한다.

또한 그는 한때 정통 유학과 거리가 있는 소설패사(小說稗史) 등에 빠져 있었다. 노장학과 잡가설·소설패사 등에 빠져 있던 신후담을 지켜보던 부친 신구중(愼龜重)은 신후담이 17세 되던 해 정주 경학 공부로 돌아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경계한다.

신구중은 신후담에게 “너는 근래 노장부탄설(老莊浮誕說)과 같은 잡가설(雜家說)에 심취해 있는데, 그러한 공부는 군자가 즐길 것은 못되고, 『손자(孫子)』·『오자(吳子)』 등 병법서도 선비의 급무는 아니며, 그 외 소설패사 같은 서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해치는 데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내가 보건대, 너는 이미 마음속에 그러한 병이 깊어져 있다. 빨리 그러한 병폐로부터 벗어나 경서 공부에 전념함으로써 전습(前習)을 타파하여야 한다”고 질타하였다.<sup>11)</sup>

부친의 경계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정주 경학으로 전환하여 공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청년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방외(方外) 학문을 추구하는 학자들과 교유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그러한 반증의 하나이다. 바로 선경(善卿) 정현주(鄭顯周)는 신후담이 방외 학문에 관심을 갖게 한 스승으로서<sup>12)</sup>, 신후담은 그의 도는 ‘자신의 도와 다르지 않다’는 존경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sup>13)</sup> 그런데 정현주는 어린 시절 서계 박세당의 문하에 직접 들어가 학문을 닦은 인물이다.<sup>14)</sup>

서계 박세당은 『신주도덕경』 등을 저술할 정도로 노자사상에도 깊은 견해를 가진 인물로서 방외 학문에 관심이 높았던 정현주의 학문 추구 특성 가운데 박세당의 방외 학문 추구의 영향이 일정 부분 미쳤을 것으로

10) 『河濱先生全集』卷九 「河濱年譜」 乙未. “著讀書錄 物外勝地記 察邇錄 物產記 動植雜記 海東方言 俗說雜記 衆籟通記 百果志 四韻艱字抄 尤耽於老莊說 續道家 玉華經 三十餘篇.”

11) 『河濱先生全集』卷九 「河濱年譜」 肅廟四十四年 戊戌(1718). “畏窩公公公 至前戒之曰 汝近來溺於雜家說如老莊浮誕之說 非君子所當玩 孫吳諸兵書亦非士之急務 其他小說稗史 莫非害於吾人心術者也 汝於此心上受病已深矣 不可不急速反求於經書以革前習.”

12) 『河濱先生全集』卷七 「河濱雜著」 傳篇 三傳 鄭丈傳. “鄭丈傳曰 頃年余自金城書堂 忽有一客 因歷路入訪自陳 平日顯見意 余雖未詳其何人 然見其眉顏有清高雅 其後余自金城移居藤原 因讀書旁近佛寺中復有一客 携酒而來 余與論文 竟夕即前之訪於金城書堂者也 於是扣其姓名 卽鄭丈名顯周 字善卿 長於余十六歲 居坡州紫谷 去藤原數里近也 鄭丈爲人高亢貞潔 與時俗異好沛 以余迂僻 自放於世外 爲同於其道 而嚮與之如是也.”

13) 『河濱先生全集』卷七 「河濱雜著」 傳篇 三傳 鄭丈傳. “鄭丈傳曰 [...] 鄭丈名顯周 字善卿 長於余十六歲 居坡州紫谷 去藤原數里近也 鄭丈爲人高亢貞潔 與時俗異好沛 以余迂僻 自放於世外 爲同於其道 而嚮與之如是也.”

14) 『河濱先生全集』卷七 「河濱雜著」 傳篇 三傳 鄭丈傳. “公少時逮遊西溪朴世堂之門 得聞其緒論 故平生見識論議有本末是非 不徇黨色.”

도 판단되는데, 신후담이 그의 『중용후설』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박세당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인용한 사실로<sup>15)</sup> 미루어보면 정현주와의 교류를 통해 박세당의 학문 추구 방법의 여풍을 입었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신후담은 스승 정현주를 기리는 저술인 『정장전(鄭丈傳)』에서 ‘스승이 어린 시절 서계 박세당의 문인들과 교류하였다’는 사실을 논급하고 있다.<sup>16)</sup> 그런데 일찍이 ‘박세당은 당색을 떠나 학문을 전개하려 했던 학문 추구’의 자세를 견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박세당과 윤증은 각각 스승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에 대해 ‘스승에 대한 입장과 학문적 입장은 다른 문제’라는 인식에서 자신들의 진리 추구를 전개해갔던 사실에서 신후담도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7)</sup>

또한 방외 학문을 추구하던 김지황(金之璜)과<sup>18)</sup> 이도부(李道夫)라는 학자도<sup>19)</sup> 신후담에게 일정한 영향을 준 인물이다. 박세홍·정현주·김지황·이도부 등은 모두 신후담의 청소년기의 학문 추구 방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학자들로 재야에서 학문을 성취해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리고 정현주·김지황·이도부 등이 실천하던 방외 학문과 박세당이 ‘정파적 입장을 초월해서 학문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실’ 등의 교훈은

15) 『河濱先生全集』卷一「中庸後說」中庸名篇之義.“推按或人說 庸者有常之謂也 朴西溪亦曰 庸者恒常也 鄙見與之合.”

16) 『河濱先生全集』卷七「河濱雜著」傳篇 三傳 鄭丈傳.“公少時逮遊西溪朴世堂之門 得聞其緒論 故平生見識論議有本末是非 不徇黨色 如尊粟谷而知其僻處 是西峰之懷懷川而譏其非 出公心病玄石之左右 求容有鄉原其味其言皆有見到處.”

17) 그러한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신후담이 성호 이익의 문하가 되어서도 이익의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익이 신후담에게 서학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동규 등에게 서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다녔고, 결국 『서학변』을 지어 이익과 다른 견해를 표방하였으며, 이익의 『사칠신편』의 학설을 윤동규·이병휴·안정복 등은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신후담은 공칠정이발설(公七情理發說)을 들고 나와 이익과는 다른 견해를 취한 사실 등이 이를 조심스럽게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18) 『河濱先生全集』卷七「河濱雜著」傳篇 三傳 金生傳.“金生傳曰 古所稱烈士何如哉 蓋死不變 所守如公子云 志士不症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者 是已在古而亦難其人 況衰叔之世 風墮而俗靡 豈易得哉 余邂逅而得於鄉縣 孤寒之人 平澤金生之璜是也 余有薄莊在平澤 平澤上下宮里 尋常往來 村人爲余言屬有金姓人寓上宮里 貧雖甚 不爲非義 且多有所知識 余要與相見 其容儀端言語不妄 已知爲佳士也.”

19) 『河濱先生全集』卷七「河濱雜著」傳篇 三傳 金鄭傳.“生嘗因余而交道夫 道夫以因余而交也 一見以心待之 生亦以因余而交也 以爲余盡者也 爲道夫盡之交 道夫未幾而道夫陷鞠獄幾死 因連坐遠配 前之知道夫者 皆反眼若不相識 生猶惘然不能已 道夫嘗爲其 先親托生求山 道夫就鞠時 妻權氏憂悖自盡 生欲自行求二山 以告道夫 一以爲道夫親山 一以爲權氏葬 而因爲道夫身後 地以酬其待己之厚 雖以不絕 道夫得罪以死不悔 嘗爲余言如此 夫一與人許心 死生之患亂不變 此古烈士事也 生幾近之矣.”

신후담의 공부방법 전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당색을 초월하려는 학문 추구 교훈은 신후담의 공부방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평생 동안 학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득적 공부방법을 택하였는데<sup>20</sup>, 선유(先儒)의 학문적 업적은 물론 정주 경학사상이라도 묵수(墨守)나 규구(規矩)로 좇지 않았고, 직접 고거(考據)하는 노력을 통해 모든 학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1724년부터 37년 동안 사제관계로 신후담과 교류했던 성호 이익의 공부방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그 일면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익은 늦게 학문에 뜻을 두면서도 경홀히 보내어 (세상에) 보익(補益)되는 일이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신진사(愼進士, 휘는 후담(後聃), 자는 이로(耳老))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와 즐겨 종유(從遊)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다. [...] 그는 22세가 되던 해인 1723년에 생원진사시에 진사로 합격하였으나 이후 대과를 포기하고 오로지 성인의 문헌에 정력을 쏟으면서 자득을 가장 숭상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학설을 주장하는 데는 구설(舊說)에 구애되지 않았다.<sup>21)</sup>

한편, 신후담의 또 다른 사상 형성 배경은 가학의 전승이다. 그는 서증조(庶曾祖) 신무(愼懋, 1629-1703)의 학문을 사숙하였는데, 신무는 신후담이 태어난 다음 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신무는 생애 초기 평안도 출신 선우협(鮮于浹, 1588-1653)을 스승으로 한다. 선우협은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 등 영남 남인들과 노론 김집(金集) 등과도 교류를 넓힌 인물이지만, 당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sup>22)</sup>

그는 스승 선우협으로부터 상수학과 천문지리·방기중술(方技衆術, 의학술) 등을 배워 익혔다.<sup>23)</sup> 그리고 선우협 사후 신무의 또 다른 스승으로

20) 『河濱先生全集』卷九「河濱年譜」戊戌. “畏窩公召公 至前戒之曰 汝近來溺於雜家說如老莊浮誕之說 非君子所當玩 孫吳諸兵書亦非士之急務 其他小說稗史 莫非害於吾人心術者也 汝於此心上受病已深矣.”

21) 『星湖全書』권47, 墓誌銘 進士愼公墓誌銘 并序. “灑晚而志學 亦涼涼焉無所補益 時有愼進士諱後聃字耳老 肯從遊獨脫然於衆好之表 [...] 年二十二 中國子上岸 自是遂廢舉業 專精於聖人之書 尤尙自得不拘於舊說.”

22) 오수창, 『조선시대 평안도의 사회발전 연구』(일조각, 2002). 178-179쪽.

23) 『河濱先生全集』卷七「河濱雜著」遺事 晚湖先生遺事. “先生少從鮮于司業浹受學 鮮于公先教大學 又以易經象數之記及天文地理方技衆術.”

는 둔와(遯窩) 허후(許厚)가 있다.<sup>24)</sup> 허후는 미수 허목의 사촌 형으로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강원도 고성 등지에서 학문활동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신무는 선우협·허후 등 두 학자를 스승으로 사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신무는 당대 학문의 폐해에 대해 ‘심오한 것만 추구하고 일상생활 문제하학(下學)는 소홀히 하는 세태라 비판한 바 있다.<sup>26)</sup> 그리고 허후는 ‘당대 벽유(僻儒)들이 편당을 짓고 도학이라는 명분을 빌려 남의 허물을 격렬히 들추거나 정주 경학의 지구만 침착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신후담의 서증조 신무도 스승 허후의 그러한 학문적 태도를 계승하여 학자들 간의 학술적 논의에는 가능한 한 당론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였다고 한다.<sup>27)</sup>

결국 한강 정구 → 관설헌 허후(또는 선우협) → 신무 → 신구중 → 신후담으로 계승되어 간 가학 전통은<sup>28)</sup> ‘당론적 이해관계가 학술적 견해로 까지 확대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한 교훈이 앞서 논급한 박세당의 학풍,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입은 정현주 등 재야 학자들이 ‘스승의 학문적 입장과 자신들이 각각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입장은 별개의 문제로 분별(分辨)하고자 했던 학문 추구 방법’과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세가 되던 1724년에는 처음으로 성호 이익을 찾아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성호학파의 일원이 된다.<sup>29)</sup> 「하빈연보」에 의하면 1724년

24) 『河濱先生全集』卷七「河濱雜著」遺事 晩湖先生遺事. “然先生之學雪翁也 不特受經而止默察 其言行輪學之蓋雪翁雅言 不離於人倫日用之實 病世之學者 務遠忽近 輕自大而卒無得也 先生學之 而工夫蓋就平實矣 雪翁經心世務 國家之典憲 時俗之觀體 京外之民業物產 無不究知其曲折 病世之學 徒守簡冊 實無益於世用也.”

25) 『河濱先生全集』卷七「河濱雜著」遺事 晩湖先生遺事. “鮮于公訛病西歸以卒 先生懼無師友之助不能以成其學 乃遍訪當世道學之士 自觀雪眉叟兩先生以至驢之尹懷之松玄之朴諸人 無不往見 而先生獨曰吾其師雪翁乎 負笈而從之.”

26) 『河濱先生全集』卷七「河濱雜著」遺事 晩湖先生遺事. “病世之學者 務遠忽近 輕自大而卒無得也.”

27) 『河濱先生全集』卷七「河濱雜著」遺事 晩湖先生遺事. “雪翁性稟公平 不喜爲激訐之論 見世之僻儒 假道學之名 而騁其雌黃以濟偏黨之私者 則心甚非之 先生學之而言議之間 絕不及於黨論矣 推是以往無事不然所以能薰陶於德性 而終得其傳者也 言語和平而簡直 舉止安重而齊謹燕 居時和氣滿面即之可愛而中有毅然 不可犯之色 其事濟品公也.”

28) 『河濱先生全集』卷八「河濱雜著」祭文(愼後恩). “陶山一脈 綿綿不絕寒岡觀雪 爰及晩湖 而公之淵源 蓋出於此.”

29) 『河濱先生全集』卷九「河濱年譜」甲辰. “春拜 星湖李先生於鵝峴寓舍 誦小學大學近思錄等書 及論四七說有紀聞編 後二日星湖回謝公於城西第 公之始見星湖也.”



장년기부터 1750년 49세가 된 노년기에 접어들 시기까지 신후담은 이익을 20번이나 방문하여 학문을 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 안산(이익의 세거지)과 파주(신후담의 세거지)가 같은 경기권이기는 하지만, 신후담이 36년 동안 스승 이익을 20번이나 방문한 것은 당시 교통사정 등을 감안해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이익을 평생 동안 네 번만 찾았던 순암 안정복과는 매우 대조적인 사실이 주목되는 부분이다.<sup>30)</sup>

그는 1724년 23세 때 처음 성호를 찾아 성호학파의 일원이 되면서 그의 문인들인 성호학파 1세대로 평가되는 소남(郡南) 윤동규(尹東奎, 1695-1773)·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 1710-1776)·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 1712-1791)·순수(醇叟) 이맹휴(李孟休, 1713-1751, 이익의 친아들) 등과 학술적으로 교류하면서 학문적 깊이와 폭을 더하여갔던 것으로 보인다.<sup>31)</sup> 그는 14세에 관례를 치를 때 성호 문인의 좌장인 윤동규를 찬자(贊者)로 삼아<sup>32)</sup> 성인식을 올렸는데, 윤동규는 신후담과는 인척으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sup>33)</sup>

그리고 이익의 조카 이병휴와는 학문과 사상적 지향이 서로 근접하고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술 『대학후설』에서 스승 이익 다음으로 이병휴의 학설을 네 차례나 긍정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그러한 일면이 짐작된다.<sup>34)</sup> 특히, 신후담의 사단칠정설 가운데, 공희로이발설(公喜怒理發說)을 이병휴가 공칠정이발설(公七情理發說)로 확대 해석하여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학설 수용 여부를 두고

30) 물론 필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왕래 횟수를 학술적 영향 여부 등을 가늠하는 잣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다.

31) 『郡南先生文集』·『河濱文集』·『貞山稿』·『順庵文集』 등의 자료에서 신후담이 소남 윤동규·정산 이병휴 등과 서찰을 왕래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순암 안정복과의 서찰 왕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순암 안정복이 성호 이익이나 소남 윤동규 등에게 신후담을 愼進士로 호칭하는 내용은 다소 고찰된다.

32) 『河濱先生全集』卷九「河濱年譜」乙未. “是年七月 公始冠參判權公珪爲貧戚 從兄尹東奎爲僎 行三加之禮.”

33) 『河濱先生全集』卷七『西學辨』「紀聞編」乙巳秋見李星湖紀聞. “乙巳七月二十七日 余往拜李星湖丈于安山庄舍 留二日 李丈問曰 吾嘗聞尹幼章(筆者註: 尹東奎)之言 則君斥西秦之學 不遺餘力云 君知西秦之學爲何如耶.” 신후담이 『서학변』을 저술한 전후 시기 서학을 비판하고 다니는 신후담의 언행을 스승 이익에게 전한 인물도 윤동규라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두 학자 간의 깊은 교류를 엿볼 수 있다.

34) 『河濱先生全集』卷一『大學後說』大學第一章 第一節. “李景協(景脅은 李秉休의 字)曰 至善者 明德之實也 經曰止於至善 而傳以仁敬孝慈信當至善之目.” 이 외에도 다른 장에서 세 번 정도 이병휴의 학설을 긍정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소남 윤동규와 별인 20년 이상의 학술적 논쟁의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sup>35)</sup>

그런데 신후담과 안정복의 학술적 교류 사실은 쉽게 고찰되지 않는다. 두 학자의 저술인 『하빈선생전집』이나 『순암선생문집』 등에서 서찰을 교환한 자료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안정복이 스승 이익과의 첫 만남에서 남긴 『함장록(函丈錄)』에서 두 학자가 서로 인사한 사실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sup>36)</sup> 그리고 안정복이 윤동규와의 서찰을 주고받는 내용 가운데 신후담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신진사(慎進士)’를 운운하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두 학자 간의 친분이 두텁지 않았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sup>37)</sup> 이익의 아들 이맹휴와 신후담은 그가 스승 이익을 찾을 때마다 서로 학문적인 질의응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맹휴가 사망하였을 때 신후담은 스승 이익을 찾아 조문하였고, 스승과 그 슬픔을 같이했던 것으로 「하빈연보」에는 전한다.<sup>38)</sup>

### III. 현전하는 경학사상 관련 자료

하빈 신후담의 문집은 1945년을 전후한 근대 이전에는 여러 사정으로 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의 후손들이 유고 정리와 문집 간행을 위해 준비하였으나 결실은 맺지 못하였다. 신후담의 모든 유고는 그가 사망한 뒤 50년이 지난 1811년에 이미 20-30%가 산실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의 아들 신신(愼信)이 「하빈연보」의 발문(跋文)에 하빈 유고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밝힌 데에서 그 전말을 들려주고 있다.

불초자가 세거지(경기 파주: 필자주)를 떠나 다른 지역(경기 용인: 필자주)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느라 선친(신후담: 필자주)의 문적(文籍)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 관계로 열 중에 두셋은 산실하고 말았다. 선친께서 돌아가신 지 50년이 지난 지금 연보(하빈연보: 필자주)를 편찬하여 선친의 행적을 드러내고자 하나, 그분의 정치한

35) 강병수, 앞의 논문(2011b, 12), 참조.

36) 『順庵先生文集』卷16 雜著 「函丈錄」. 안정복은 喪家에서 상주와 맞절을 하는 예의 法禮의 전거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이때 신후담이 맞절을 하는 예를 강변한다고 이익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37) 『順庵先生文集』卷3 書 與邵南尹丈書 甲申 및 與邵南尹丈書 丁亥 참조.

38) 『河濱先生全集』卷九 「河濱年譜」 辛未.

말씀과 독실하고 경의스런 행적을 누구에게 알아볼 것이며, 어디에서 찾아서 고증해낼 수 있을지?<sup>39)</sup>

필자는 여기서 신후담 유고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한 본 주제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동안 그의 유고 전승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의 연구 성과는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도 지금까지 하빈 저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과정에서 1998년 여강출판사에서 『하빈전집』 상·하 두 권을 영인본으로 간행하기 위해 편집 작업을 완료한 상태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접한 바 있다.<sup>40)</sup>

필자는 개인적으로 소장자와 소장처를 확인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고, 여강출판사의 영인본 미간행 등 문집의 해제조차 나오지 않아 원자료의 소장처·소장자 등 하빈 유고의 현전과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 2006년에 『하빈선생전집』(아세아문화사 간) 9책이 영인본으로 나왔는데, 이 전집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양승민 박사의 해제를 통해 그 전말을 알게 되었다.<sup>41)</sup> 그 뒤 서지학적으로 하빈 유고를 계속 탐색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던 양승민 박사는 2013년 「하빈 신후담의 저술의 전래과정과 문헌적 특징」이란 주제의 논문에서 2006년의 해제보다 한 발 나아간 하빈 유고의 전말을 보완하고 있다.<sup>42)</sup>

그의 고찰에 의하면 하빈 생전의 초고본은 『하빈집』과 『하빈잡저』로 구성된 『하빈전서(가칭)』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런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는 1762년 신후담 사후 1년 만에 신후담의 두 동생 후팽(後彭)과 후은(後恩), 그리고 아들 성(倅)이 『하빈집』과 『하빈잡저』를 모아 수정한 정고본(定稿本)을 만들어 『둔와전서(澗窩全書)』로 이름하였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sup>43)</sup>

하지만 정고본으로 『둔와전서』나 『하빈전서』 등이 편집을 마친 뒤에도 간행되지 못한 연유로 말미암아 앞에서 논급하였듯이 신후담의 아들

39) 『河濱先生全集』 卷九 「河濱年譜」 辛未.

40) 이 자료는 당시 여강출판사 이순동 사장을 직접 만나 일정 기간 빌려 볼 수 있었는데,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한다.

41) 『河濱先生全集』 卷一 「해제」(아세아문화사, 2006) 참조.

42) 양승민, 「하빈 신후담의 저술의 전래과정과 문헌적 특징」, 『하빈 신후담의 학문과 사상』(하빈연구소, 2013. 11. 2), 1-18쪽.

43) 위의 논문, 17쪽.

신신 때부터 신후담의 유고 중 30% 가까이가 산실되었다. 그리고 그 후 정고본 『둔와전서』와 초고본에 가까운 『둔와전서』 등을 여러 공공 장서기관에서 관리하거나 개인 소장으로 흩어져 전해지면서 아들 신신 이후 더 많이 산실되고, 신후담의 친필본, 초고본·정고본 등이 서로 뒤섞인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7월 현재 뒤섞여 현전하는 그의 유고들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신후담의 여러 후손이 각각 개별적으로 소장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확인되는 신후담의 유고 중에서 그의 경학사상을 직접 담고 있거나 경학사상과 관련된 참고할 만한 자료로 해석되는 저술은 표1과 같다.

표1-현전하는 경학사상 관련 문헌과 서명만 전하는 문헌

연번	총집 문헌명	개별 저서명(현전)	권·책수	소장처
1	하빈집(河濱集) 내편(內篇)	심의서(深衣書)	15책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		소학차의(小學筭疑)		
3		대학후설(大學後說)		
4		중용후설(中庸後說)		
5		사칠동이변(四七同異辨)		
6		도서요론(圖書要論)		
7		낙서후설(洛書後說)		
8		범수도설(範數圖說)		
9		기삼백주설(稽三百註說)		
10		역의수록(易義隨錄)		
11		춘추잡지(春秋雜識)		
12		서경집해총설(書經集解總說)		
13		이성호역경질서찬요 (李星湖易經疾書纂要)		
14		역학계몽보주(易學啓蒙補註)		
15		속호쌍호계몽익전지의 (讀胡雙湖啓蒙翼傳識疑)		
16		독역경통해도설보지의 (讀易經通解圖說補識疑)		
17		독소씨한중괘서도지의 (讀蕭氏漢中卦序圖識疑)		
18		독임당양씨시고고금문역기의 (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		

19	하빈집(河濱集) 내편(內篇)	독구당래씨역도설찬요 (讀瞿唐來氏易圖說纂要)	15책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		주역정의팔론(周易正義八論)		
21		논제도가설역(論諸道家說易)		
22		아동간이최씨립역구결약평 (我東簡易崔氏笠易口訣略評)		
23		잡서수필(雜書隨筆)		
24		황명제가평요(皇明諸家評要)		
25		팔가총평(八家總評)		
26		팔가총론(八家總論)		
27		내교(內教)		
1	하빈잡저	전(傳)	3책	송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
2		유사(遺事)		
3		김화만교(金華漫稿)		
4		쌍계야화(雙溪夜話)	4책	개인 소장 (신용일)
5		책문제(策問題)		
6		의사수(疑四首)	미정	국립중앙도서관
7		책문삼수(策問三首)		
8		둔와서학변(遯窩西學辨)		
9		잡저류(雜著類)	불분권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10	주역상사신편	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	10권	개인 소장 (신용일)
12		둔와계사전(遯窩繫辭傳)	10책	

현재 부전하면서 저술명과 개요만 전하는 문헌

1	하빈연보	주자대전 초록(朱子大全 抄錄)	미정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및 개인 소장(愼宗穆)
2		논어차의(論語劄疑)		
3		맹자차의(孟子劄疑)		
4		중용해(中庸解)		
5		심경차의(心經劄疑)		
6		역도외편(易圖外篇)		
7		가례차의(家禮劄疑)		
8		역도찬요(易圖纂要)		
9		서경집해(書經集解)		
10		춘추경전총인(春秋經傳摠按)		
11		시경통의(詩經通義)		
12		시경해(詩經解)		
13		천문략론(天問略論)		
14		곤어도설략론(坤輿圖說略論)		

## IV. 생애 시기별 경학사상의 특징

### 1. 초기 경학사상

신후담의 생애 초기 경학사상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22세가 되던 1723년 이전까지라고 생각된다. 그는 7세부터 사서이경을 배웠지만 14세를 전후하여 17세 이전에는 노장학·잡가설·소설패사 등에 관심이 높았고, 18세 이후부터는 정주 경학이라는 정통 유가 공부로 돌아가 172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관료진출을 포기하고 학문 추구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그는 사서삼경이란 경서의 기초 이해와 제자설(諸子說)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볼 때 경학사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경학 공부를 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후담은 7세 이후 그의 할아버지 신휘오(愼徽五)가 마련해준 숙사(宿舍)에서 재야 선비 박세홍에게 사서이경을 배운다.<sup>44)</sup> 이경은 오경 중에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서인지는 자세히 밝혀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유학에 관한 유가서를 익힌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박세홍에게 초기 유학 공부를 마친 뒤에는 일정한 스승을 갖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보통 유학 가문으로는 상대적으로 자방적인 학문을 익힌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부친이 노장학과 잡가설 등에 심취하고 있던 그를 향해 유학 경서 공부로 돌아갈 것을 경계한 사실과<sup>45)</sup> 노장학, 잡가설, 소설패사 등의 학문에 심취되어 이에 관련된 저술을 많이 남긴 사실이<sup>46)</sup>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신후담은 청소년으로서 세상의 모든

44) 『河濱先生全集』卷七 『河濱雜著』傳篇 三傳. “余自七八歲時 以王考命受學於先生 通史及四書二經皆受於先生也.”

45) 『河濱先生全集』卷九 「河濱年譜」戊戌. “畏窩公召公 至前戒之曰 汝近來溺於雜家說如老莊浮誕之說 非君子所當玩 孫吳諸兵書亦非士之急務 其他小說稗史 莫非害於吾人心術者也 汝於此心上受病已深矣 不可不急速反求於經書以革前習.”

46) 『河濱先生全集』卷九 「河濱年譜」甲午 및 乙未. “甲午年條 四十年甲午 先生十三歲 公自號曰 金華子 以所居村名金城故也 著金華外篇 又著續列仙傳 公方幼少時 嘗留意於 黃白之術也 又著續搜神記 太平遺記 龍王記 海蜃記 遼東遇神記 紅粧傳 奇門圖說 文字抄 雜書抄 隨筆錄 經說雜錄 等書 此雖公幼少時 泛濫乎方外文字 而其早年博通有如此也.” “乙未年條 著讀書錄 物外勝地記 察邇錄 物產記 動植雜記 海東方言 俗說雜記 衆籟通記 百果志 四韻艱字抄 尤耽於老莊說 續道家 玉華經 三十餘篇.”

분야의 학문을 두루 알고자 하는 박학사상에도 관심이 높았다.

그는 1718년부터 공자가 주장한 박학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으며<sup>47)</sup>, 학문 연구에도 박학 추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sup>48)</sup> 또한 명대 왕세정(王世貞, 1526-1590)이 ‘삼업(三業)이란 서재에 천하의 백가서를 두루 비축해두고, 그중에서 얻은 지식으로 많은 저술을 남겼다’는 박학 추구의 학문 태도를 동경하여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읽겠다고 장담하던 기상을 다음과 같이 깊이 토로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박학만을 임무로 삼아서 요체를 구하지 않았다. 일찍이 왕세정이 삼업이란 큰 서재를 만들어 그곳에 백가의 책들을 비축하여두고 많은 저술을 하였는데, 흔쾌히 배우고자 책 한 권을 만들어 ‘후독서지(後讀書志)’라 이름하였다. 나도 평상시 읽은 문헌들을 수시로 논열하려 하였는데, 향후 그러한 추류(推類)로 천하의 모든 책을 다 읽어 그 지향하는 바를 완전히 궁구한 뒤에나 그만두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다.<sup>49)</sup>

박학을 추구한 인물로 신후담이 동경하던 명대 왕세정은 강소성 소주부(蘇州府) 학자인데, 그는 이반룡(李攀龍, 1514-1570)의 문인으로 이반룡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16세기 조선의 이항복은 선조에게 당시 중국의 학풍은 그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다고 전하면서 명대 왕세정과 이반룡 두 학자를 다음과 같이 상소한 사실에서 왕세정의 사상을 일부나마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인은 품성이 심후하고 문장 규모도 광활하여 작문은 양한(兩漢) 이전을 논하고, 시율(詩律)은 소무(蘇武)와 이릉(李陵)을 일컬으면서도 송학은 도외시하여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수창자는 이몽환(李夢陽: 이반룡)인데 그는 고학(古學)을 숭상하여 한 시대의 대유(大儒)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왕세정 등이 계승하여 풍습이 크게 바뀌었습니다.<sup>50)</sup>

47)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박학 인식에 대한 연구」, 설강유영박교수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 『한국사학논총』(푸른사상, 2003) 참조.

48) 『河濱先生全集』卷八『河濱雜著』「雙溪夜話」. “耳老曰 學可博 則不可陋.”

49) 『河濱先生全集』卷三「八家摠評」序說三段. “余幼時 專以博學爲務 而不求其要 嘗聞王世貞爲三業 以畜百家之書 而著書於其中 則 欣然欲學遂爲一冊 號以後讀書志 凡平日所讀之書 隨輒論列 將欲以此類 盡讀天下之以書爲名者 而盡窮其志趣 然後乃已.”

50) 『宣祖實錄』32年 閏4月 13日 辛卯條. “恒福曰 地之所生 致使然矣 中朝人非但稟賦甚厚 其文章地步廣闊 行文則論兩漢以上 詩律則稱蘇武李陵 宋朝之學 置而不論 其首倡者 李夢陽也 夢陽爲尚古之學 爲一代大儒 其後王世貞輩和之 風習大易.”

이반룡이 상고주의(尙古主義)를 지향하는 대유가 되었다는 중국 당시 대 평가를 이항복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반룡의 사상을 왕세정이 이어받아 풍습을 크게 바꾸어놓았다는 정보 등에서 이반룡의 왕세정에 대한 사상적 영향력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신후담은 명대 심진(沈津)의 『백가류찬(百家類纂)』을 읽은 뒤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 주지하다시피 신후담 당대는 제자백가가 정통 정주학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비판받고 있었다.

심진의 『백가류찬』은 17세기 말 영남 남인들에 의해서 한정된 부수로 간행되었고, 신후담 당대 학자들이 이단으로 비판받던 제자백가서를 접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백가를 다룬 『백가류찬』을 얻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sup>51)</sup> 그런데도 박학 추구를 위한 학문적 열정이 높았던 신후담은 당시로서는 희귀하고 이단서라 볼 수 있는 『백가류찬』을 얻어 그 내용에 깊이 심취했으며<sup>52)</sup>, 그는 이 책을 수십 번 탐독하였다고 한다.<sup>53)</sup>

한편, 그는 『팔가총평』이란 저술을 통해 제자백가 가운데 7가(七家)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백가류찬』에서 크게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이 저술을 통해 유가 원형을 규명(糾明)하고, 유가와 다른 제가와와의 학문적 원류나 사상적 차이를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유술자(儒術者)들이 유가의 원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 경계로 삼고자 하였다.<sup>54)</sup>

이 저술에서 그는 제자를 8가로 분류하고, 유가의 도만 핵심적 진리로 보았으며, 유가 이외의 7가는 모두 유가에서 파생된 사상이나 학설로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sup>55)</sup> 그는 도가의 ‘청정허적(淸淨虛寂)’은 유가

51) 김철범, 「조선 지식인들의 諸子書 독서와 수용양상」, 『한문학보』 17권(2007) 참조; 김방울, 「『百家類纂』의 편찬과 간행」, 『전통문화논총』 제10권(2012) 참조.

52) 『河濱先生全集』 卷三 「八家摠評」 序說三段. “余十四五時 讀沈氏百家類纂 而心悅之 然閱潛玩不覺.”

53) 『河濱先生全集』 卷九 「河濱年譜」 三十七年 辛巳條. “沈氏所輯 百家類纂 數十讀.”

54) 『河濱先生全集』 卷三 「八家摠評」 序說三段. “不覺見化於諸子荒誕之說 後因反求於吾儒之書 稍悟前日之非 則却不能勇革謬習 以爲及時 進修之辯 而乃復取諸子之說 究其源流 証其是非而欲以自托於著述 其用心已左而去道愈遠矣 故其見於文者率多浮汎務外之味 而全欠損約反本之實 噫 是其受病之原 豈但在言語之間而已矣 今就沈氏本略加論例 欲使讀者 知審擇之方也.”

55) 『河濱先生全集』 卷三 「八家摠評」 八家摠論. “深探乎其原, 則道法等七家, 實皆出於儒家, 而儒家之於七家, 初不可以若是其班也.”



의 ‘청심과욕(淸心寡慾)·허중무아(虛中無我)’에 해당되고, 법가의 신상 필벌은 유가와 동일하며, 명가의 ‘순명허실(循名責實)’은 유가의 ‘명실(名實)’을 살피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묵가의 ‘귀검(貴儉)·겸애(兼愛)’도 유가에서 ‘검(儉)·애(愛)’를 높이는 것과 같고, 종횡가의 ‘명변선사(明辯善辭)’는 유가에서 ‘임기응대’하는 사신들의 직책 수행과정에서 나온 언행과 같으며, 잡가의 ‘박기겸통(博記兼通)’도 흔히 유가의 사관(史官)이 채집하고 기술하는 직무에서 연원하고, 병가의 ‘기략절제(機略節制)’도 유가의 사마(司馬, 병관(兵官))에서 유래하는 ‘법도’라는 해석이 그것이다.<sup>56)</sup>

한편, 신후담은 유가를 제외한 7가가 유가에서 분기, 파생된 연원은 화하(華夏)가 주나라의 쇠약으로 이론이 달라지고 학문이 사사롭게 전개된 결과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제가설이 분기된 뒤 유가를 자처하는 지식인들도 ‘유가가 나머지 7가의 모체였던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sup>57)</sup>고 개탄하였다. 그는 ‘유가에서 나온 7가의 실상을 쉽게 적출해내기가 쉽지 않고, 원래 7가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던 유가의 원형을 그냥 기다려서는 회복시킬 수 없다’<sup>58)</sup>는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유가의 원형 규명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 2. 중기 경학사상

그의 생애 중기의 경학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는 1724년 성호 이익을 처음 찾아 그를 스승으로 모신 이후부터 1743년경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성호 이익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신후담 자신의 초기 경학사상을 보다 심대(深大)하게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었고, 한편 새로운 서학정보를 접하면서 『둔와서학변』을 저술하였다. 또한

56) 『河濱先生全集』卷三「八家總評」八家總論. “淸淨虛寂 雖曰道家之說 而儒家亦有謂淸心寡慾 虛中無我云者 則此非道家之所尊也 信賞必罰 雖曰法家之說 而儒家亦有謂賞當其功 罰當其罪云者 則此非法家之所獨也 名家雖主於循名責實 而以禮經辨其名物之說觀之 則儒家之亦審名實者 可知矣 墨家雖主於貴儉兼愛 而以孔聖寧儉汎愛之訓觀之 則儒家之亦尚儉愛者 可知矣 至如縱橫之明辯善辭 本出於行人專對之職 雜家之博記兼通 本出於司史採述之留 而兵家之機略節制 亦祖乎司馬之遺法 則是孰非儒家之所講者乎.”

57) 『河全先生全集』卷三「八家總評」八家總論. “其爲儒家者 既不知儒道所包之廣大 而無以該攝乎七家 其七家者 則又各得乎儒道之一端 不知其源之同出.”

58) 『河全先生全集』卷三「八家總評」八家總論. “尙何論儒家之不可班於七家 而七家之實皆出於儒家乎 亦何望儒家之能有以該攝乎七家 而七家之能有以反察乎儒道之爲其原哉.”

사서(四書)와 『심경(心經)』·『소학』 등은 물론 『주역』에 대한 자기 해석을 가한 저술을 내게 되는데, 즉 사서(四書)에서 신후담의 당대까지의 주소를 인용하는 한편 자기 견해를 더한 각각의 ‘○○차의(筭疑)’·‘○○후설(後說)’, 그리고 ‘○○해(解)’ 등이다.

사실 이 시기 신후담은 사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어차의』·『맹자차의』 등을 저술하고<sup>59)</sup>, 『대학해(大學解)』<sup>60)</sup>·『중용해(中庸解)』 등을 저술하는데, 전자 들은 현전하지 않지만, 후자 들은 현재 전하고 있는 『대학후설』·『중용후설』 등에 자세히 반영되어 있다고 추측된다.<sup>61)</sup> 그리고 『대학후설』·『중용후설』 등의 자서(自序)에서 그는 ‘정주의 학설’을 근간으로 하는 하되, 다른 학설도 함께 반영한다<sup>62)</sup> 정주 경학의 입장에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는 정주 학설을 그대로 묵수하거나 규구로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보인다. 즉, 그는 『대학후설』 장절마다 선유 학설을 먼저 소개하고, 그 장절 문단 뒤 ‘조변(條辨)’·‘우안(愚按)’ 조항에서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sup>63)</sup> 그리고 ‘우안’ 조항에서는 특히 주자의 격물치지설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이견을 드러낸다.<sup>64)</sup>

또한 그는 『대학』 이해에서 주자의 격물치지장 보망 구성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18세기 이전 일부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이익·윤동규·이병휴·안정복 등 성호학과 1세대도 모두 보망장 구성의 불필요성에 동의한 사실은 이미 머리말에서 최봉영의 논지로 소개한 바 있다.<sup>65)</sup> 그렇지만 『고본대학(古本大學)』 보망장 구성의 불필요성 외에 성호 이익은 『대학질서(大學疾書)』를

59) 『河濱先生全集』 卷九 「河濱年譜」 1736(『맹자차의』를 1732년부터 시작하여 1736년에 완성).

60) 『河濱先生全集』 卷九 「河濱年譜」 1731.

61) 『河濱先生全集』 卷九 「河濱年譜」 癸亥(1743). 『대학후설』·『중용후설』을 저술하였는데, 대체로 筭疑의 예를 취하였다.

62) 『河濱先生全集』 卷一 「大學後說」 朱子章句序. “大學後說 讀書大學時 逐節筭疑 因採程朱說及其他先儒說 兼取近日師友間所聞 集成一部 而後於朱子章句 以成筭疑之說 故目之曰 後說.”

63) 『河濱先生全集』 卷一 「大學後說」 朱子章句序. “虛齋蔡氏曰 大學二字 兼經傳言章句者 經傳之章句也 本集註也.”

64) 『河濱先生全集』 卷一 「大學後說」 第2章 釋格物致知. “愚按 朱子釋八條之義固至矣 但其釋格物致知者 於愚見猶有可疑處.”

65) 주3) 참조.

통해 정주 경학의 내용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고, 이병휴도 이익의 견해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신후담도 위와 같이 성호 이익의 학설을 적극 긍정하여 나서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고찰된다.

그리고 그의 『중용후설』에서는 ‘우안’·‘조변’·‘약설(約說)’·‘총설(總說)’ 등을 통해 자기 견해를 주장한 것 외에 선유 학설을 먼저 제시하는 순서를 취한다. 그는 『대학후설』과 똑같이 주자의 주해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한대 정현(鄭玄)의 주소를 인용하면서 주자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66)</sup> 또한 그가 이익의 견해를 인용,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후담은 『황명제가평요』에서 명대 정주 학자와 양명학자에 관해 철저한 문헌 고거적 이해를 보여준다.<sup>67)</sup> 그는 정주 경학을 계승한 진진(陳瑱, 생몰년 미상)의 『근사잡문(近思雜問)』을 주자의 『근사록』을 계승한 저술로 평가한다. 그는 비록 주도면밀하지는 않지만 양명학과 같은 이학(異學)이 지배하던 시기에 정주 경학을 굳게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있다고 긍정한다.<sup>68)</sup> 그는 이기일원론을 주창한 나흠순(羅欽順, 1465-1547)이 주자와 육구연의 학설상 차이를 명백히 밝힌 주장과 육구연 학설을 비판한 사실을 통쾌하다고 긍정한다.<sup>69)</sup>

그리고 그는 명대 정주 경학을 정통으로 지켜나갔던 학자들의 학설을 통해 정주 경학의 당위성을 확인한 뒤 이제 양명학설을 비판하고 나선다. 그는 왕수인 학설은 이미 이학(異學)으로 선유들이 간주한 논리는 정설이라고 전제한다. 신후담은 ‘명말의 치양지설은 물론 정주 경학의 근본이념

66) 『河濱先生全集』卷一「中庸後說」第一章.“追按古鄭 註曰 天命謂天所命生人也 是謂性命 木神則仁 金神則義 火神則禮 水神則信 土神則智 性者生之質 命人所稟受也 率循也 循性行之 是謂道修治也 治而廣之人放效之 是曰教 按此與程朱說 不盡合 而姑錄之以備一說.”

67) 『河濱先生全集』卷三『皇明諸家評要』.  
「評遜志齋方孝儒佳城雜識」·「評文清公薛瑄道論」·「評蔡泰和羅欽順困知記」·「評王守仁陽明語錄」·「評陳獻章白沙要語」·「評王畿三山麗澤錄及南遊會記」·「評郁天民傳習存疑」·「評陳瑛近思雜問」·「評管志道論乾龍義」·「評何塘陰陽管見及管見後語」·「評王廷相陰陽管見辯」·「評劉元卿大學略記」·「評朱俊柵讀書錄」·「評于鑑中說」·「評湛若水新論」·「評王文祿求志編」·「評鄭善夫經世要談」·「評周汝登九解」·「評鄭曉古言」·「評薛嘉約書」·「評林兆恩心聖直指」·「評唐樞禮元剩語」·「評王鴻儒擬齊筆語」·「評楊起元秣陵紀聞」·「評田藝衡混古始天易」·「評朱舜三十六宮圖說」

68) 『河濱先生全集』卷三「皇明諸家評要」評陳瑛近思雜問.“陳氏此書 雖未見有精至之味 而皇朝之末 異學披昌 此獨守程朱舊說爲可貴也 其論爲人爲己一條 最爲可味.”

69) 『河濱先生全集』卷三「皇明諸家評要」評泰和羅欽順困知記.“羅泰和此書 其學經傳及先儒書 而隨見論列者 可想 其用功之博 而但欠精至之味 其論朱陸異同一段 最爲痛快也.”

인 ‘이(理)와 ‘성(性)’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려는 견해에 대해서 ‘이’와 ‘성’까지 부정하면 ‘인의(仁義)’가 모두 사라져 생민의 윤리가 없어지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비판한다.<sup>70)</sup> 그러나 그가 양명학자들이 전개한 논지 전체를 배척하는 태도는 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명학자 왕기(王畿)의 ‘치양지설은 결국 허적설(虛寂說)에서 나왔으므로 성학(聖學)의 종지(宗旨)’라는 견해에 대해서 신후담은 그의 성학 수용만은 긍정하고자 하였다.<sup>71)</sup>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신후담이 송대 정주 경학 및 명대 정주 경학자는 물론 양명학자 및 노장학까지 고구하면서 정주 경학의 수용과 비판이라는 복합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즉, 사서의 ‘○○차의나 ‘○○해’ 등의 편찬과 『대학후설』·『중용후설』 등에서 산견되기는 하지만 정주 경학에 대해서 일정한 비판을 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등 정주 경학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입장을 여기서도 동시에 견지하고 있음이 고찰된다.

### 3. 말기 경학사상

신후담의 생애 말기의 경학사상은 1744년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생애 초기·중기의 경학사상을 완전히 단절하거나 다른 차원으로 극복해가는 사상 단계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시기부터 그의 경학사상 추구과정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생애 중기에는 사서 중심의 저술을 내놓은 반면에 말기로 오면서 오경 중심의 저술로 바뀌어가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그의 초기·중기의 경학사상을 담은 저술들과 서학에 대한 이해를 다시 보완 또는 재해석하려는 태도나 입장을 취해갔다는 점이다.

그가 생애 초기 제자백가의 비판을 통해 유가 원류를 찾아내고자

70) 『河濱先生全集』卷三「皇明諸家評要」評朱俊柵讀書錄. “朱氏此書 雜取經書中 性命微妙之說 以議論釋末附以太極 議良知之說 而其說皆幻亡可駭 如釋易之窮理盡性 以至於命曰 至命者 與道一也 與道一 則理性皆剩語矣 夫以理性爲剩 則是仁義可遺而生民之倫廢也.”

71) 『河濱先生全集』卷三「皇明諸家評要」評王畿三山麗澤及南遊會記. “麗澤錄南遊會記兩書 皆王畿之與其師友追述陽明學者也 而其所述之該 則推以致良知爲要 其在麗澤錄者 有曰 致良之學 原本虛寂 而未嘗離於倫物之感應 固聖學之宗也.”

했던 수사학 지향은 생애 중기와 말기부터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고찰된다. 1727년(영조 3) 공자와 그 문도의 활동을 그의 꿈속으로까지 끌어들이고 있었던 사실은 그가 수사학 이해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sup>72)</sup> 또한 『중용』의 찬자를 자사(子思)로 받아들였던 당대(當代)까지의 통설을 다시 이해하고<sup>73)</sup>, 그 편찬 시기를 공자 문인이 잔존하던 시기로 해석해내는 관점도<sup>74)</sup> 선진 경학사상을 고찰해내려는 그의 신념의 표출로 보인다.

그가 제자백가를 다시 고구(考究)하게 된 배경도 선진 경학을 추구하는 단계적 수순의 하나로 볼 수 있다.<sup>75)</sup> 또한 그가 생애 중기부터 『고문중용(古文中庸)』을 개보(改補)한 주자의 장구 구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주자 주소까지 이견을 표출한 사실에서 선진 경학의 권위를 구실로 정주 경학을 무비판적으로 송습(誦習)하는 평범한 유술인(儒術人)들의 경학 공부방법과는 다른 태도로 학문을 추구해가고 있었음이 엿보인다.<sup>76)</sup>

1740년대 중반에 신후담은 제자백가 중 28가를 간략히 정리한 『잡서수필』이라는 유서(類書)를 편찬한다.<sup>77)</sup> 그는 전한 초공(焦贛)의 『대역통변(大易通變)』을 경사(經史)와 제자백가의 사상으로 이해하고, 그 이치는 천지만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78)</sup> 또한 초공 문인 경방(京房)의 『역전(易傳)』은 『역경』의 이치에 매우 가까운 주소로서 긍정하고 있음을

72) 『河濱先生全集』卷九「河濱年譜」己酉, “十一月 公寢於岫月堂有夢 孔子率七十門人 儼然來臨 主輿而坐曰 吾周遊天下 無可居之處 今欲歸息于汝 所對曰 大聖降臨幸不可言 乃拜謝 因橫經 而前難疑答問如群弟子之侍於杏壇者 覺而記之.”

73) 『河濱先生全集』卷二「中庸後說」第三十三章 總論, “中庸之文 首尾起結 中間敷說 與易經繫辭傳同法 至於天人性命之義 亦多符合 竊疑繫傳 亦子思所作歟.”

74) 『河濱先生全集』卷二「中庸後說」第三十三章 總論, “愚按中庸中字 發於堯舜固也 聯下庸字恐亦先民所言 夫子述之.”

75) 『河濱先生全集』卷三「八家摠評」序說三段, “三代以後 學校之教不明 學者將欲求聖賢之成法而求事理之當然 舍學文何以哉 然學文之道 即有其序矣 義理精米之與學文進修之路 備於經傳 國家理亂之變人物邪正之分 詳於史記 此其所當先也.”

76) 『河濱先生全集』卷二「中庸後說」第二十章 第六節.

77) 『河濱先生全集』卷三「雜書隨筆」.  
「焦贛易林」·「京房易傳」·「王弼易略例」·「古三墳」·「端木賜詩傳中培詩說」·「韓詩外傳」·「戴德六戴禮」·「蔡邕獨斷」·「楊雄方言」·「陶潛孝傳等書」·「越絕書」·「趙曄吳越春秋」·「三輔黃圖」·「常據華陽國志」·「崔鴻十六國春秋」·「王通元經」·「皇甫謐古土傳」·「王粲英雄記」·「汲冢周書」·「竹書紀年」·「穆天子傳」·「甘公申星經」·「桑欽水經」·「張華博物志」·「崔豹古今注」·「劉邵人物志」·「顏之推家訓」

78) 『河濱先生全集』卷三「雜書隨筆」焦贛易林, “焦延壽所著大易通變 其卦摠四千九十六 其文出入經史百家 其理包羅天地萬物.”

알 수 있다.<sup>79)</sup> 그리고 한영(韓嬰)은 『한시의외전(韓詩外傳)』에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산림(山林)인 통이유상자(通移有常者)가 『중용』의 의리를 실천한다는 명성은 있지만, 이들을 백이와 숙제의 청절정신(淸節淸神)과 비교하여 비판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sup>80)</sup>

신후담은 한대 경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다. 그는 한대의 『자공시전(子貢詩傳)』이 비록 자공의 저술은 아니지만 자신과 시기적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시를 배우려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한다.<sup>81)</sup> 전한의 대덕(戴德)이 『예기』의 편목을 간추려 정리한 『대덕대대례(戴德大戴禮)』는 육경에 우익(羽翼)되고, 이를 저술한 대덕이야말로 ‘세교궁경지사(世教窮經之士)’라고 극찬한다.<sup>82)</sup> 후한 채옹(蔡邕)의 『채옹독단(蔡邕獨斷)』, 주대 월국의 홍망성쇠를 다룬 후한 원강(袁康)의 『월절서(越絕書)』와<sup>83)</sup> 주대의 오국과 월국의 홍망성쇠를 다룬 후한 조曄(趙曄)의 『오월춘추』<sup>84)</sup> 등에서 신후담은 『춘추』의 춘추필법의 정통적 계승을 고찰해내고 있다.

이어 원시유가 원류 추구를 위해 엄정한 문헌 고거를 하게 된다. 그가 선진 경전의 범람에서 위서를 발견해내려 한 신념은 그러한 연장선의 한 실천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선진 유가서로 전해지던 『고삼분(古三墳)』·『죽서기년(竹書紀年)』 등을 모두 위서로 간주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한대 학자들이 신농씨 때 만들었다고 전하는 『고삼분』의 정전(正典)에 관한 기사를 고거한 뒤 주대 말기의 훈고체를 모방하였다고 확신하면

79) 『河濱先生全集』卷三「雜書隨筆」京房易傳. “京氏易傳三篇 其說以飛伏爲宗 以世應爲斷 [...] 而律之以易經垂象之大義 則抵牾不相獨入如乾坤 當以二五爲主 而此乃取三上世應是也 其列六十四卦之序者 雖與易經不同 點有以盡易之變而不害其相爲經緯 其以乾卦爲首者與經同.”

80) 『河濱先生全集』卷三「雜書隨筆」韓嬰詩外傳. “韓嬰詩外傳 雜記古說 [...] 其於國家理亂之故 指陳最切有足警世者 其記春秋以來 賢人事蹟頗詳 可以補史氏之遺 其論依傳義理而時有粹駁之雜 如以朝廷之入不出之山林之往不返 而欲其通移有常者 蓋有聞於聖人中庸之義 然以是而詆夷齊爲不祥 則非所以尊淸節 其與孔子之讚之以民到于今稱之 孟子之推之爲百世之師者亦異矣.”

81) 『河濱先生全集』卷三「雜書隨筆」端木賜詩傳申詩說. “子貢詩傳 雖未必其出於子貢 而要是漢儒所爲 去古未遠 學詩者不可不考也.”

82) 『河濱先生全集』卷三「雜書隨筆」戴德大戴禮. “大戴此書 不無後人傳會之言 而要之祖述孔氏 羽翼六經 卓然有補於世教窮經之士 不可不考也.”

83) 『河濱先生全集』卷三「雜書隨筆」越絕書. “越者國人之氏也 絕者言句踐抑強扶弱 絕惡反之於善也 著書者未可考 或云子貢 或云伍子胥 然仲尼之門 五尺恥稱伯術 以子貢之賢 宜非屑於此者也.”

84) 『河濱先生全集』卷三「雜書隨筆」趙曄吳越春秋. “吳越春秋 多與越絕同者.”

서 위서로 간주한다.<sup>85)</sup> 또한 그는 『죽서기년』도 하출도에 관한 기사가 공자가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황제 헌원(軒轅)에서 부터 주나라의 은왕까지의 편년세기가 너무 횡단한 사실이 많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위서라고 결론을 내린다.<sup>86)</sup>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생애 말기에 그는 육경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었다. 그가 육경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주역』과<sup>87)</sup> 그에 관한 주석이 가해진 『계시통의』·『설괘통의』·『잡괘통의』·『하락설』·『낙서후설』·『도서요론』·『괘지도설』·『주역통의』·『범수도설』·『역의수록』·『주역사신편』 등에서<sup>88)</sup> 그 개략이 고찰된다. 또한 『서경』을 이해한 『서경집해』<sup>89)</sup>, 『시경』의 전반을 해석한 『시경통의』<sup>90)</sup>, 『춘추경전총안』 등의 저술을 통해 『춘추』를 개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sup>91)</sup>, 『춘추』에 관한 여러 견해를 적시한 『춘추잡지』에서 선진 경학에 대한 그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sup>92)</sup>

그는 『시경』·『서경』·『예기』·『악경』 등은 선왕의 유적(遺籍)으로 보존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므로 번용(繁冗)한 것은 산거(刪去)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sup>93)</sup> 그렇지만 『춘추』는 그 저술들과는 달리 이해하면서, 240여 년 동안의 노나라 역사인 『춘추』를 기록한 사관은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관들 모두가 성현이 아니므로 사실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sup>94)</sup>

85) 『河濱先生全集』卷三「雜書隨筆」古三墳.“古三墳之爲僞書 吾已言於翼傳疑臆中矣 今復以文體驗之 政典爲作於神農氏 而篇末刑者 例也 政者正也等說 乃周末訓詁之體 [...] 其爲無疑矣.”

86) 『河濱先生全集』卷三「雜書隨筆」竹書紀年.“竹書紀年 未知何人撰 始皇帝軒轅訖於周隱王 編年紀世放春秋之例 其言多謬妄難信.”

87) 『易經』을 자주적으로 해석한 그의 저술 『周易象辭新編』은 1728년부터 1758년까지 무려 30년 동안을 편술하고 수정·증보한 것으로 보인다.

88) 『河濱先生全集』卷九「河濱年譜」乙丑·丙寅·丁卯·戊辰.

89) 『河濱先生全集』卷九「河濱年譜」戊辰·己巳. 『書經集解』는 1748년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1749년에 완성한다.

90) 『河濱先生全集』卷九「河濱年譜」庚午. 『詩經通義』는 1750년 신후담 49세 때에 저술을 완료하고, 같은 해 『詩集解』도 함께 저술한다.

91) 『河濱先生全集』卷九「河濱年譜」己巳 및 庚午. 『春秋經傳摭按』은 『詩經通義』와 마찬가지로 1749년부터 1750년까지 1년 만에 완료한다.

92) 『河濱先生全集』卷二「春秋雜識」. 「春秋雜識」는 1750년에 완성한다.

93) 『河濱先生全集』卷二「春秋雜識」.“詩書禮樂 先王遺籍 存以受教 惟在刪去其繁冗而已.”

94) 『河濱先生全集』卷二「春秋雜識」.“至於春秋則不然 聖人因王子之不作 而諸侯之僞竊

한편, 『서경』에 대해서도 그 유래와 연원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는 『서경』의 ‘서’자의 유래를 (1) 『설문해자』에는 저(著)로, (2) 『중용』에는 문(文)으로, 『계사전』에는 태고문자인 ‘결승(結繩) 및 서계(書契)로 각각 풀이하고 있다고 고거하면서, 성인의 치도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95)</sup> 또한 육경 중에서 『서경』을 제외한 경전은 정치(政)를 주제로 다루지 않고, 사실적 일(事)만 기록하여 그 일의 성격에 따라 『시경』이니 『예경』이니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서경』과는 구별 짓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96)</sup>

이어 그는 『서경』의 편목도 공자가 정해놓은 것으로 보고, ‘우서(禹書) · 하서(夏書) · 상서(尚書) · 주서(周書)’ 등 4대(代)의 경전이 100편 이라고 고찰하였으며, 선진 경학의 경지에 있는 공자 같은 성인만 이들 경전을 모두 산정(刪定)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그 산정자의 권위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sup>97)</sup> 그리고 그는 공자 이후 『서경』을 주소한 후대의 서책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후대 산거에 의해 『서경』 편목이 사라진 사실에 대해서도 크게 개탄하였다.<sup>98)</sup>

## V. 맺음말

필자는 하빈 신후담의 경학사상에 관한 서설적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그의 경학사상 형성 배경으로는 사문과의 교류 · 가학전통 등을

---

也 據魯史萬褒貶以代天子之賞罰 自隱至哀 二百四十餘年 史官一人 未必皆聖賢而書法不能盡當 聖人既欲著成經世大文 不得不改謬。”

95) 『河濱先生全集』 卷二 「書經集解總說」. “書卽文 中庸曰書同文是也 說文曰著也 從聿者 [...] 諸說之義皆通 然以造字之義 則說文最近聿者筆也者 固筆以著之者也 然群經之文 莫非書 此獨稱書者何也 按易繫辭曰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 百官以治萬民 以察可見書契之作本出於聖人爲治之用也 是以君上之言行 國之政教 凡係治道者 莫不記之以書 而卽稱爲書 此書之所以名也.”

96) 『河濱先生全集』 卷二 「書經集解總說」. “至於他經之作 不主於其政治 而各有所記之事 則隨其所記而爲之名 以別於此 如易則曰易 詩則曰詩 禮樂之名 各有其稱是也.”

97) 『河濱先生全集』 卷二 「書經集解總說」. “孔子定夏禹尙周四代之書 凡百篇 蓋亦刪取其精者也.”

98) 『河濱先生全集』 卷二 「書經集解總說」. “舊與經別行 孔君引以各冠於篇首至蔡氏傳 並削去之 今詳書序完具 而書篇多缺引序冠篇 雖不相稱 至於蔡氏之削去 而使後人無所考 則殊爲未安.”



들 수 있다. 방외의 학문을 추구하던 박세홍·정현주·김지황·이도부 등 재야 학자와의 시승관계를 통해 생애 초기에는 노장학·제자백가·소설패사 등 유학 이외의 학문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파적·학파적 관계를 초월하여 객관적 학문을 추구했던 박세당 → 정현주로 계승되던 학풍을 본받고 있었다. 그의 가학전통은 선우협·허후 → 신무 → 신구중 → 신후담으로 계승되었다.

둘째, 신후담은 생애 초기 지방적 교육환경에서 노장학·제자백가·소설패사 등의 이단서를 열독하면서 그러한 저술도 다소 남겼다. 그러나 유가 공부에 전념하라는 부친의 경계에 따라 생애 중기부터 다시 정주 경학과 사서를 깊이 연구하였다. 그가 남긴 『대학후설』·『중용후설』·『논어차의』·『맹자차의』 등의 저술은 그 결과이다. 그는 『대학후설』·『중용후설』 등에서 정주 경학을 기본 경학사상으로 인용하면서도 비판적 견해도 함께 보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한대 정현의 주소, 성호 이익의 견해 등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이 고찰된다.

셋째, 그의 생애 말기는 선진시대 경학을 지향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실이 눈에 띈다. 생애 초기 공자의 박학사상을 통해 심진의 『백가류찬』을 접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 유가를 제외한 제자백가를 비판하면서 제자백가에서 유가 원류를 걸러내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한 강한 의지는 정주 경학사상의 이해가 주류를 이루기는 하지만, 생애 중기에는 경학사상에 대해 일부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생애 말기에는 선진 경학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정주 경학사상을 좀 더 벗어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선조실록』, 『성호전서』, 『소남선생문집』, 『순암선생문집』, 『정산고』, 『하빈선생전집』.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역학 연구와 이해」. 『한국사상사학』 제16집, 2001.  
\_\_\_\_\_, 「하빈 신후담의 박학 인식에 대한 연구」. 설강유영박교수고회기념 한국사학  
논총 간행위원회, 『한국사학논총』, 푸른사상, 2003.

\_\_\_\_\_, 「성호학파의 동국경학 사유 -가학과 자득의 학문추구 방법으로부터-」.  
『조선시대사학보』 57, 2011a. 6.

\_\_\_\_\_, 「하빈 신후담의 사철론 전개 -공회로이발설의 형성 배경과 그 영향-」.  
『한국실학연구』 제22호, 2011b 후반기.

강세구, 「성호학파의 이기논쟁과 그 영향 -공회로논쟁을 중심으로-」. 『구천원유한  
교수정년기념논총』(하), 해안, 2000.

금장태, 「둔와 신후담의 서학비판이론과 쟁점」. 『종교학연구』 20, 2001.

\_\_\_\_\_, 『조선 후기 유교와 서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방울, 「『백가류찬』의 편찬과 간행」. 『전통문화논총』 제10권, 2012.

김철범, 「조선 지식인들의 제자서 독서와 수용양상」. 『한문학보』 17권, 2007.

박종홍, 「서구사상 도입 비판과 섭취」. 『아세아연구』 12-3, 1969.

서종태, 「이익과 신후담의 서학논쟁 -『둔와서학변』의 「기문편」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16, 2001a.

\_\_\_\_\_, 「이익과 신후담의 서학담론」 I · II · III. 『부산교회사보』 27 · 29 · 31,  
2000. 7, 2001b. 1 2001c. 7.

양승민, 「하빈 신후담 저술의 전래과정과 문헌적 특징」. 『제2회 하빈학술 연구발표  
회: 하빈 신후담의 학문과 사상연구』, 하빈연구소, 2013. 11.

이만채, 『벽위편 -신후담의 서학변-』. 열화당, 1971.

이원순, 「직방외기와 신후담의 서학교육론」. 『역사교육』 11 · 12합집, 1969.

정혜정, 「서구 근대교육의 수용과 ‘교육론’의 동서융합(18-19C) -혜강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0권 제1호, 2008. 4.

川原秀城 · 김현영, 「이익의 과학사상」. 『성호학보』 8, 2010. 12.

최동희, 「신후담의 서학변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15-2, 1972.

\_\_\_\_\_, 『실학사상 탐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민족문화연구소, 1974.

\_\_\_\_\_, 『신후담 · 안정복의 서학비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최봉영, 「성호학파의 주자대학장구 비판론 -격물치지설을 중심으로-」. 『동양학』  
제17집, 1987.

홍이섭, 「실학의 이념적 일모 -하빈 신후담의 서학변 소개-」. 『인문과학』 1, 1957.

##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18세기 성호학과 하빈 신후담의 경학사상을 서설적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그의 서학관에만 집중되어온 기왕의 연구 지향에서 경학사상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의 시야를 환기시키는 기회를 열고자 하는 첫 시도이다. 필자는 신후담의 유고(遺稿) 가운데 현재 전하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경학사상 관련 사료를 모두 찾아 그 한계 내에서 그의 경학사상의 여러 측면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익이 되었으면 한다.

그의 생애 초기는 유학 양반가문으로서 특이하게 노장학·제자백가·잡가설·소설패사 등에 심취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생애 중기에는 『대학』·『중용』을 각각 주해(註解)한 『대학해(大學解)』·『중용해(中庸解)』(말년에 각각 『대학후설』·『중용후설』 등으로 보완함)를 통해 정주 경학을 이해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정주 경학을 비판하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음이 엿보인다. 또한 그는 명대 양명학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일부는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실도 산견된다.

한편, 그의 생애 말기는 생애 초기에 관심을 보여왔던 박학(博學) 추구와 제자백가를 비판하던 그 연장선에서 정주 경학에 대한 일정한 비판적 시각을 계제(階梯)로 선진 경학을 지향하려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는 제자백가 비판을 통해 유가 이외의 제가의 유래가 원시 유가의 원형에서 나왔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그의 선진 경학 추구과정에서는 정주 경학을 무비판적으로 묵수적(墨守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득적 해석을 가하는 공부방법으로 들어서고 있음도 추측된다.

**투고일** 2014. 6. 2.

**심사일** 2014. 8. 4.

**게재 확정일** 2014. 8. 28.

**주제어(keyword)** 성호학파(Seong-ho School), 정주 경학(Jeongju Classics studies), 박학(erudite), 제자백가(Hundred Schools of Thought), 선진 경학(pre-Qin Dynasty classics)

### Habin Shin Hu-dam's Isagogic Study of the Ideas of Chinese Classics

**Kang, Byeong-soo**

This study aims at making a rough approach at Seong-ho School member Shin Hu-dam(Pen name: Ha-bin)'s view on Chinese classics on an isagogic level. This is the first attempt to depart from the past research oriented and focused at western views in order to arouse and broaden a new research area that is the idea of Chinese classics. It is the aspiration of the author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ontemplation of Shin Hu-dam's idea of Chinese classics from various aspects by collecting the historical records related to the classics excluding the data among his posthumous works that do not exist in the present or that have not been discovered, as far as the limitations may go.

It is known that Shin Hu-dam in his early days was infatuated by Laozi,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etc., which is peculiar considering his Confucian lineage. In his middle ages, he displays a duality in which although he understands Jeongju Classics studies through *Da Xue*(後說) and *Golden Mean*(後說) which are interpretations of *Da Xue* and *Golden Mean*, he partly criticizes Jeongju Classics studies. Also, a display of his duality can be observed in which he strongly criticizes Ming Dynasty's Wang Yangming but accepts some parts of it.

Meanwhile, his late ages are characterized by his departure from his pursuit of erudition and criticism of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to his pursuit of pre-Qin Dynasty classics using regular critical viewpoints on Jeongju Classics studies. He argues that all school of thought other than the Confucian school derived from the original form of primordial Confucianism. Also, it is supposed that he did not adhere to Jeongju Classics studies uncritically in his pursuit of pre-Qin Dynasty classics, but already began to employ a way of studying that applied self-satisfactory interpretation.